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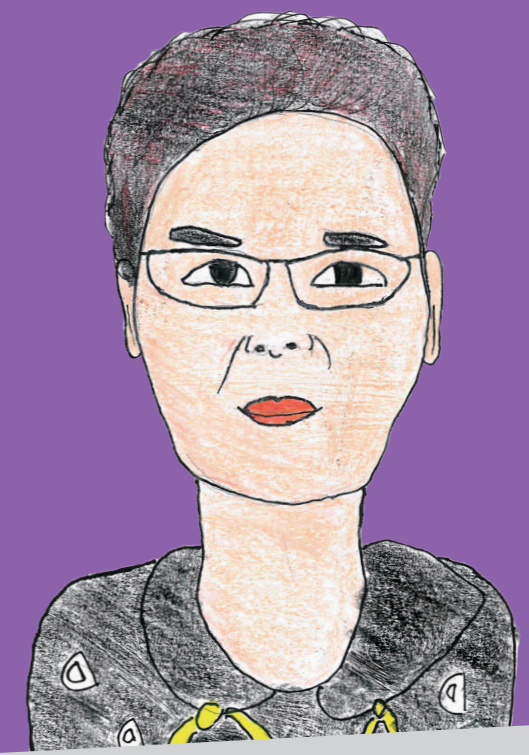
人
스토리
서른 여섯 번째
송영숙



마지막 숙제

이야기·그리기: 송영숙 듣고 쓰기: 박라희·반민진

똥똥 학교라도 다닌 덕에
이름석자는 쓸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조심 때문에 최종학력을
일이 있으면 매번 초등학교
중퇴라고 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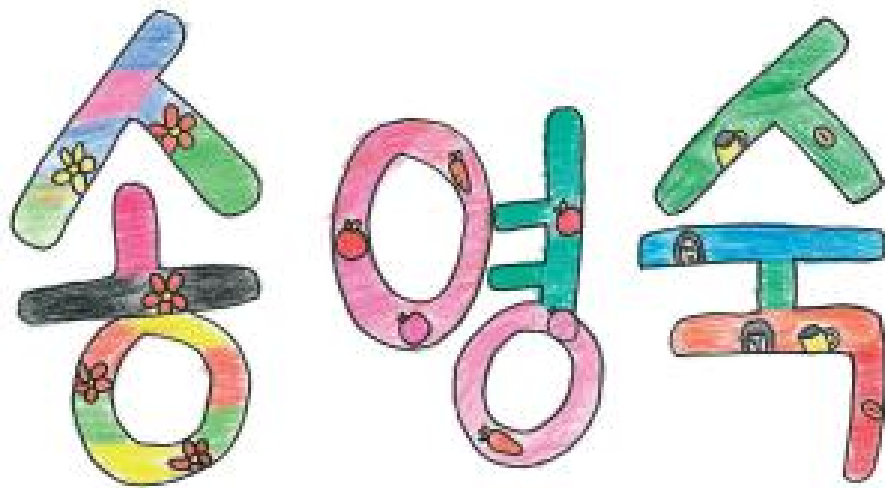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천권도서관 人 스토리

스토토리 서른 여섯 번째 송영숙

마지막 숙제

이야기·그리기: 송영숙 듣고 쓰기: 박라희·반민진



사진을 자른다



할머니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였을 때,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20여살에 대원에서 1살 소아과 박사로 근무하셨습니다. 하지만 연니라 오빠를 골목으로 불고 형제 없이 파출부로 가셨습니다. 한의 병원이 들어서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용마는 전염병이 날 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할까하는 또 다른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집을 사셨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는 오빠도후 소아과 없는 남편이 재능이 생김을 해한다고 어음을 다들했습니다. 전염이 끝난 후, 어수선한 막살때, 아버지는 혼자서 혼자 살아보시려고, 무엇과도 몰라, 아버

를 기억하 했으니까요.

어머님은 대원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까. 대신 교회가 운영하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병원 교직원들 돌보기 위해 자택에서도 교직원들 만나서 밥 못 먹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교직원들이 많았습니까.

아버지가 재직된 용마재로, 초등학교는 없었습니다. 평민 문화 교육학교, 어촌회, 병원에서. 하지만 어머니 다니던 학교에는 사람이 없었어. 대신 '동원 학교'에서 신학 초등학교, 아버지가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버지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도 일하셨습니까. 주모가 없어도 병원이 안 해서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도 많은 기억이었습니다. 나중에